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북도 일원에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소년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 '비상하고 하나되라' ... 스포츠 꿈나무들의 열전 돌입

대한민국의 미래 스포츠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전북도 일원(주 개최지 익산)에서 개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5~28일 4일간 익산종합경기장 등 14개 시·군 49개 경기장에서 초등학교부, 중학교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36개 종목에 1만70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전국소년체전 대상 종목은 초등학교부 21개 종목(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씨름, 유도, 양궁,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 골프, 바둑, 검도, 에어로빅)과 중학교부 36개 종목이다.

지난 14일부터 4일간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단한건의 안전사고 없는 성공체전으로 개최한바 있다. 25일부터 개최되는 소년체전은 시·도간 순위 경쟁은 없고 시상만 있어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의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전점검 등 민반의 준비를 다했다.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스터

체전준비단은 익산종합운동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도·시·군,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전북체육회로 구성된 1실 15부 54개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장애학생체전때 운영시스템을 유지해 숙박, 교통, 수송, 자원봉사 등 분야를 나눠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 누수 없는 안전체전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성공기원 기념행사.



초등·중등부로 나눠 개최... 대상 종목은 육상·수영·축구 등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 시·도간 순위 경쟁 없이 시상만  
**체전준비단, 장애학생체전 운영시스템 유지 '안전체전' 마무리**

이번 체전은 문화와 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여행체험 일번지를 만들어 전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알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북을 방문하는 선수단 등을

위한 1일 관광코스 선정과 전북투어패스 등 지원을 통해 전북의 맛과 멋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체전준비단장은 "전국체전이 끝나고 금년 장애학생체전과 소년체전을 준비했다며, 소년체전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행사를 잘 마무리해 내년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